

하늘반 이야기 (12월 1주~12월 2주)



마지막 산소리 숲속학교에는 겨울이 왔어요. 11월만 해도 울긋불긋 단풍이 예쁘게 물들어 예쁜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산소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추울까봐 어묵국을 준비 하실 만큼 쌀쌀해졌네요. 후후~ 불며 맛있게 어묵을 먹고 산에 올라가기 전에 준비 체조를 하고 출발했답니다. 가는 길에 나뭇잎을 주워 눈을 20번 감았다 뜨니 나뭇잎이 반짝이는 모습도 보고 손 망원경으로 요정을 찾아보기도 했답니다. 헤어지기 전에 산소리 선생님과 사진도 찰칵 찍고 숲속 학교에서 즐거웠던 추억과 함께 유치원으로 출발했답니다.^^ (12월 2일 산소리숲속학교)



손끝놀이 선생님과 함께 하는 스트링 아트시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 선생님께서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를 준비해오셨답니다. 망치를 이용해 선생님께 도와주신 못을 살짝 더 두드려 모양을 잡아주었어요. 그리고 반짝 반짝 예쁜 실을 요리조리 감는게 조금은 어려웠지만 트리가 완성되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더 멋진 트리를 만들기 위해 전구를 요리조리 감고 불을 켜니 와~~~ 예쁘다며 이야기했답니다. 낮이라 잘 표현은 안 되었는데 밤에 보면 더 놀라겠죠~~^^ (12월 9일 손끝놀이)



산외 유치원에서 함께한 자연놀이~ 이번 시간에는 도토리를 모으는 동물 어치, 뱀돼지, 곰에 대해 알아보고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숫자만큼 가면서 도토리를 모았답니다. 칠보(청솔모)와 백암(다람쥐)팀으로 나뉘어 게임을 하였는데 사이좋게 한번씩 승리를 해서 즐거운 게임이 되었답니다. 아참 청솔모의 이름은 원래 청소였답니다. 아이들은 자연 놀이 이후 청소라고 부른답니다. (12월 10일 자연놀이)